社說

평양행 자승 스님에 거는 기대 크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북측과 남북불교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월 30일 ~ 2월 2일 평양을 방문한다. 북한이 서해 NLL북측 해상에 해안포를 발사하는 등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기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남북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3년여 동안 줄곧 얼음장처럼 차가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큰 전환이 있어야 한다. 남은 북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북은 핵무장 등 군비 확충이 오히려 민족문제를 풀어가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남북불교계는 지난 10여 년 동안 금강산의 신계사를 함께 복원했다. 복원 이후 우리측 스님의 상주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활발했던 교류가 소강상태에 빠졌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되면서 남북불교교류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지도 못한 채 끊어지고 말았다.

북한의 해안포 발사가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상황이 되면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라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었음을 거듭 확인했다. 자승스님의 이번 방북이 남북불교교류는 물론 남북교류에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불자들과 함께 기대한다.

한참 엇나간 국정원과 경찰

국가정보원에서 불교를 담당하는 직원이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인 시민단체의 행사와 관련,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방북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조계사에 압력을 가해 행사가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재고해달라고 협조를 구해도 압력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한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자승 스님 방북과 연계시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한참 엇나간 것이다.

큰 권력을 지닐수록 신중하고 거듭 신중해야 한다. 작은 잘못도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일탈이라는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경찰이 4대강 공사 저지에 앞장섰던 스님을 폭행한 사건도 상식 밖이다. 경찰이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공권력이 스스로 불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이다. 경찰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불안하고 안타깝다.

폭행당한 스님이 수행자이며 4대강 반대모임의 주요 소임자라는 점에서 이번 폭행 사건에 의도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경찰 책임자의 사과는 그 다음이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기관이 불교와 수행자를 비롯한 종교인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불손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사회를 맑히고 밝게 비추는 샘물과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겸손함을 익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불자 세상보기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4대강 애도할 시간도 없는가

흐르기 때문에 강이요 그 흐름이 멈춘 곳이 바다이다. 흐름이 멈춰진 것은 이미 강이 아니다. 백성들의 온전한 삶의 터전인 '마을'을 작은 흐름으로 휘돌아 나온 시냇물이 강물과 만나 큰 흐름으로 굽이쳐 마침내 바다의 품에 안겨 그 흐름을 마감한다.

강은 경계가 아니라 중심이다. 그래서 강의 역할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다. 강은 유구한 흐름을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풍요롭게 해줬고 사람들은 그 풍요로운 삶의 터전에서 '마을'을 이뤄 저 나름대로 물산을 생산하고 문화를 가꾸어 왔다. 그 '마을' 사람들은 소망하는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사당과 절을 짓고 정성스레 생산물들을 바치기도 했고, 삶의 애환을 어루만져줄 신명의 굿판도 벌렸으며, 극심한 노동으로 만신창이가 된 육신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고 흥겨운 장단을 두드리며 흐드러지게 한바탕 춤판을 벌리기도 했고, 푸념인 듯 염원인 듯 육자배기 사설들을 구성진 가락에 맞춰 서리서리 풀어내기도 했고, 산과 강이 어우러진 절경을 글과 그림으로 칭송하기도 했다. 이렇듯 강은 그 '마을'에 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원천인 동시에 그곳에 기대고 있는 '마을'과 '마을'의 교류의 장이며 소통의 장인 생산 문화 공동체인 것이다.

흐름(流)이 쌓임(積)을 낳는 역설(逆說)이 물길에서는 진리이다. 오랜 세월 물이 산을 쓸어 내려 흘러와 부려 놓은 것이 둔치이다. 둔치는 변경(邊境)이다. 삶의 터전인 '마을'의 가장자리인 동시에 물길의 가장자리이기도 하다. '마을'에도 물길에도 몸을 섞을 수 없는 변경인 것이다. 역설적으로 변경은 기존의 중심에서 일탈된 새로운 문화의 중심이기도 하다.

모진 시집살이 서러운 눈물 찍어내는 며느리의 안식처가 둔치 빨래터요, 부모님 매 타작을 피해 고샅길 내쳐 달려 둔치에 이르러 모래밭에 주저앉아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고 중얼거리며 해가 할미봉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홀로 모래집을 지었다 부수며 소일하는 복동이의 피난처요, 대처로 공부하러 간 정미소 집 둘째 아들이 방학이라 내려와서 오랜만에 동무들과 함께 모여 모래무지, 피라미, 버들치 쫓으며 천렵하던 곳도 둔치의 모래톱이요, 개구쟁이들 사소한 말다툼이 주위의 부추김으로 그만 큰 싸움으로 변하여 악동들이 맞장 뜨는 곳도 둔치의 모래사장이었다. 하여, 둔치는 비록 변경일지라도 때론 안식과 피난의 장소로 때론 우정을 나누는 곳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서 멈춰라. 멈춰야 할 것은 물길이 아니라 뱀 혀처럼 날름거리며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있는 중장비의 기계소리다. 우선 그대로 둬라. 굳이 물길을 멈추게 하는 공사를 해야 한다면 강에 기대어 대대로 살아온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듣고 그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되새겨 본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더 나아가서 '마을사람'들이 펼쳤던 기원판, 굿판, 춤판, 사설판, 글판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그리고 며느리와 복동이가 고단함과 서러움을 삭일 수 있고 정미소집 둘째 아들과 개구쟁이 악동들이 우정을 나누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상실(喪失)은 애도(哀悼)를 통하여 복원된다. 참된 복원을 위해 사려 깊은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만 한다. 고단한 삶을 어쩌지 못하여 층층이 얼어붙은 강을 미끄러지듯이, 새벽녘 물안개 피어오르는 포구에서 나룻배에 몸을 내 맡기듯이 '마을'을 떠난 '마을사람'들이 다시 강을 건너 '마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강' 하나쯤은 마련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2월의 테마-인연

좋은 인연이 삶을 아름답게 한다

우리의 인연에는 여러 가지 인연이 있다. 사람과의 인연, 자연과의 인연, 본인의 업(業)과의 인연 등 셀 수 없는 인연 속에서 살아간다. 그 인연마다 희 · 노 · 애 · 락이 함께한다. 희노애락은 꼭 인간과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대상과 유 · 무주의 공간과도 희노애락은 공존한다. 봄이면 한 송이 꽃에 마음이 새롭고 여름이면 바람 한 점에 후련해진다. 요즘 들어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인연은 자연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자연재해들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천재지변으로 종말론까지 들썩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얼마 전 남미 아이티의 지진참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폭설과 홍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냉정히 되돌아보아야 할 점은 이런 현상은 바로 사람들의 편리함과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선풍기를 켜고 시원함을 느끼던 세상에서 에어컨을 켜고도 더위를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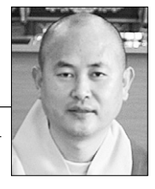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구를 살리자'는 외침은 항상 있어왔지만 그 실천은 많이 부족하다. 자연과의 좋은 인연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공해의 주범이 되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생각해서 친환경의 자동차를 타는 것과 에어컨과 온풍기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 작은 실천부터 필요하다. 마음 놓고 흐르는 냇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던 때로 되돌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폐수를 마구 버리는 것만이라도 하지 않는 것 등 많은 부분에서 작은 일부터 자연환경을 살리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자연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임을 자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상게'에는 "사람은 모두 땅(地), 물(水), 불(火), 바람(風) 네 가지(四大)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사람은 네 가지의 뼈대로 형성돼 있으며, 돌아가야 할 자연이라는 것이다. 우리 몸은 자연과 하나이다. 편리함과 탐욕심만 쫓아 무분별한 개발을 하다보면 자연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현실이 된다.

아름다운 복사꽃이 피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이 세상 어디 쯤인지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예전에는 어느 곳이든 물 좋고 산 좋은 아름다웠지만 현실은 재앙만이 쏟아지고 있다.

요즘 영화 '아바타'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한다. 영화는 성스럽고 귀한 자연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개발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이제는 멈추고 잘 유지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과 자연, 자연과 인간 사이의 교감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 자연과의 좋은 인연을 맺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길이다.

問余何事栖碧山
왜 산에 사느냐고 묻는다면
笑而不答心自閑
빙그레 웃을 뿐 대답 못해도 마음 더욱 넉넉하네.
桃花流水杳然去
복사꽃 물에 흘러 아득히 가니
別有天地非人間
인간세상 벗어난 또 다른 세계라네.



정도 스님
동국대 외래강사

현불만평

박구원

아직 아날로그 방식이 있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FAX (02)737-0698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FAX (02)737-0696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0학년도 신입생 (학점은행제)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귀의 삼보하옵고 2009년 9월 30일 영산재의 문화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되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 범음대학은 전통을 이어가는 우수한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불교일용의식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신입 및 수료과정의 학인스님 및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신입 및 수료 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1시~7시	이기봉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시~7시	마일운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1시~7시	조인각	30
불교작법(무용)	나비춤/바라	수	오후1시~7시	한해사	30
불교실기(의식)	시련/대령/관욕등	목	오후1시~7시	조인각	재학생졸업생
이 론 Ⅰ (범패의전승계보)	범패의 전승 계보	화	오후1시~7시	심만춘	30명
이 론 Ⅱ (영산재행위전승학습)	영산재의 행위전승 학습	화	오후4시~7시	한활안	30명
불교일용의식	불공/시식/예불	수	오후1시~7시	이기봉	30명

편입학 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 일	시 간	교 수 진	모집인원
각 배	각 배	목	오후1~7시	마일운	약간명

학점은행제모집 (2010 학년도) 2010년학년도 1학기 과정

개설과목	교 수	요 일	모집인원
범패의전승계보	심만춘	화	30
사물실습	조인각	목	30
영산재행위전승	한활안	화	30

과정별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1) 응 시 자 격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불교학, 음악, 무용)
(2) 수료및 졸업과정
1.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2. 최종학력 졸업 (예정) 증명서
3. 주민등본 1부
4. 반명함판 사진 4부
5.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사본 1부 (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3) 학점은행제 과정
1. 고졸이상자, 전문대 과정 4년제 대학과정 중퇴자
2.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3.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4. 주민등본 1부
5. 반명함판 사진 4부

(4) 편 입 과 정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2.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3. 주민등본 1부
4. 반명함판 사진 4부
5.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6.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영산재 보존회 인정기관에서 발부된 수료증에 한함)

전형일정
① 원서대 및 전형료 전체공통 : 50,000(오만)원
② 2010년 1월 25일 ~ 2월 19일

합격자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특 혜
1. 재학생 중 4년 과정을 졸업시 종단에서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수계산림에 참가 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함
2. 출가 승려로서 법계 미품수 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자격 부여
3. 4년 과정의 수료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을 부여한다.
4.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급 부여 및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을 부여하고 각종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입 학 문 의
전화 02) 392-3234 / 팩스 02)392-3239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장 이기봉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홈페이지 : www.okchunbud.kr